

발달장애 학생들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광주에서 19세 중증자폐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A씨는 아이가 학교에 다녀올때까지 긴장을 늦출수 없다. 언제 담임교사로부터 전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A씨 자녀가 간혹 소리를 지르거나 자해를 하는 등의 '도전 행동' (비행과는 다른 불복종, 물건 부수기 등의 행동장애)을 하기 때문이다. 다르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들의 놀림과 괴롭힘이 반복되면서 화를 내는 일이 점차 늘어났다.

A씨는 결국 자녀를 특수학교로 옮겼지만 '믿을 구석'이었던 특수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를 버거워했다. A씨는 "아이가 사교할때마다 할 수 있는 건 담임교사에게 사과를 거듭하는 것뿐이었다"면서 "이미 180cm 가까이 커버린 아이가 집기를 부수고 사람을 때리기까지 해 결국 아이를 내년에 자퇴시키기로 결심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학부모 B씨도 최근 18세 자녀가 지내는 공동생활가정 시설로부터 '더이상 아이가 복지관(특수학교)을 다닐 수 없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B씨의 자녀는 학교에서 불편한 일이 생기면 화를 내고 욕을 하며 폭력적 행동을 보였다.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을 시켰지만, 다른 환자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병원에서도 결국 입원을 거부당했다.

B씨 부부는 모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극단적 선택까지 떠올릴 때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시설을 소개받아 겨우 아이를 맡겼다. B씨는 "학교는 물론 병원에서조차 거절당하는 우리 아이는 대체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하소연했다.

광주 특수교육대상학생 3461명 중 발달장애 2859명 '82.6%' 적절한 교육 못 받고 상당수 '문제 학생' 낙인 학교 밖 내몰려 일반학교 징계 66% '교내봉사'...특수학교 대부분 '출석정지'

광주 지역 내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이 3461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혀 학교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2022년 3218명에서 올해 3461명까지 늘었다. 이중 발달장애 학생은 82.6%(2859명)를 차지한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특수학교에서조차 내몰리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 비장애 일반학교(190개교)에서 최근 3년(2021~2024년)간 내려진

1850건의 징계 가운데 교내봉사 처분이 1214건(64%)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이 489건(26%)으로 뒤를 이었다. 출석정지는 147건(8%)에 불과했다.

반면 특수학교에선 총 54건의 징계 중 출석정지 처분이 45건(8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처분은 각각 11%, 6%에 그쳤다.

부모들은 학교의 처분은 장애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행태라고 지적한다.

특히 장애학생들이 학교의 징계처분으로 결국 가정으로 되돌아와 문제가 더 악화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모들은 최근 교권 보호 차원에서 교육 활동 침해 예방 등 대책이 나오고 있는 점이 더 두렵다고도 했다. 전문가 역시 특수학교에서 도전행동을 하는 학생들

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징계처분은 교육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 특수학생 징계 과정에서 문제행동이 장애로 인한 것인지, 학교가 학생에게 적합한 개별화 교육을 진행했는지를 고려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특수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기준이 비장애 학생과 똑같이 적용돼 학교에서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손쉽게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진영 광주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는 "발달장애인에겐 출석정지는 사회를 배우고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일반교육에서 연명만 낮은 형태의 현 특수교육에서 벗어나 장애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2일 오전 광주시 5·18 교육관에서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장애 학생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장해원 기자 hey1@kwangju.co.kr



유행성 감염병 예방용품 2일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여름철 각종 유행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복구 드림가족 210세대에 배부할 목욕용품을 포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성희룡 의혹' 광주 남구의원, 의장 후보 사퇴

남호현 단수 후보...경선 가능성도

성희룡 가해자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 남구의회의원이 의장 경선 후보에서 사퇴했다.

2일 광주시 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제9대 후반기 의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남호현(가 선거구)의원 한 명으로 좁혀졌다.

이날 오전 제9대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경선 후보에 등록했던 A 의원이 운영위원장에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A 의원은 지난 5월 의원실에서 들른 의사국 직원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의장 후보에서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 의원이 의장 후보에 등록하면서 B씨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소속 윤리감찰단이 남구의회를 방문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광주일보에는 A 의원에게 사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황경아 남구 의장은 "감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후반기 의장 선거가 마무리되고 9일 하반기 본회의가 개최되면 윤리회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소속이었던 박용화(다 선거구) 의원이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해 의장 후보 등록이 점쳐지고 있어 경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장해원 기자 hey1@

재개발·재건축

우리집도 할 수 있을까

서구, 오늘 정비사업 역량강화교실

광주시 서구가 주민 주도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법과 관련 정책을 소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구는 3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청 2층 들불홀에서 '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교실'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우리집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정비사업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려주는 자리다. 강사로는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 전문가가 나선다.

교육에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조합 설립까지 이어지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소개하며, 정비사업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도 제공한다.

교육은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오는 11월에는 정비사업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갈등 및 분쟁 해결 사례 등 실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구는 앞서 지난해 재개발조합을 비롯한 정비사업 추진단체 8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

한빛원전 수명연장 주민공청회 또 연기

영광·고창 주민들 연기 요청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인 주민공청회가 또 연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영광(기존 4일)과 고창(5일) 지역의 주민공청회가 각각 12일과 15일로 연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기는 지자체의 요청 때문이라는 것이 한수원측의 설명이다. 지자체가 장소 섭외 문제로 연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주민 민원때문에 연기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과 고창 주민들은 "합평군민이 주민의견 수렴절


차 진행 중지 가져분 신청을 낸 상황에서 일부 지역만 공청회를 진행하는건 맞지 않다"고 연기를 요청했다.

지난달 10일 합평군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기한 한빛 1·2호기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져분 신청 심리가 5일 진행되기 때문이다.

합평 지역민들은 이날 단체로 버스를 타고 경주지원 앞으로 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주민공청회는 지난달 부안 지진으로 인해 6월 17일(고창)과 21일(영광) 한차례 미뤄진 바 있다.

한편 한빛 1호기(가압경수로형·950MW급)가 지난달 30일 전출력에 도달해 한빛원전 1~6호기가 7년만에 모두 정상가동에 들어갔다. /김다민 기자 kdi@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